황룡사 9층 목탑 비밀, 1300년 만에 풀리다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지 발굴 50주년 특별전

10월 11일까지 특별전시관서
황룡사 목탑 사리장엄구 등
핵심유물 117건 322점 공개
'찰주본기' 銘 금동사리함서
제작 장인 4명 이름 첫 확인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신라 최대 사찰이자 호국불교의 상징인 황룡사 9층 목탑에 봉안됐던 부처님 사리와 사리장엄구의 비밀이 발굴 50주년을 맞아 공개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윤상덕)은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皇龍奉佛)'를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황룡사 목탑 심초석 사리공과 주변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를 중심으로 신라인들이 사리를 어떻게 봉안하고 장엄했는지를 조명한다. 황룡사는 신라 왕실이 불교를 통해 국가 질서와 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중심 사찰로, 9층 목탑은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한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전시에는 황룡사 목탑 사리공 출토 금동 사리함을 비롯해 보물인 '황룡사 찰주본기' 명문 금동 사리함, '중화 3년' 명문 금동 사리기 등 핵심 유물이 공개된다. 또한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납석제 사리호와 해인사 길상탑 탑지석 및 소탑 등 총 117건 322점의 문화유산이 한자리에 선보인다.

전시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사리 신앙과 목탑'에서는 창건 당시 봉안된 사리장엄구를 통해 사리 신앙의 시작과 호국 상징물로서의 9층 목탑의 의미를 살핀다. 2부 '사리의 재봉안'은 경문왕 대 목탑 중수 과정을 조명하며 기존 사리에 새로운 사리와 법사리(경전), 공양물이 추가로 봉안되는 의식 과정을 다룬다. 3부 '사리장엄의 확산'에서는 황룡사 이후 통일신라 후기 여러 사찰로 확산된 사리장엄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연구 성과를 '9층탑의 9가지 이야기(Nine-story Pagoda, Nine Stories)'라는 주제로 소개하는 데 있다. 연구진은 사리공 전체가 금동판으로 장엄돼 하나의 거대한 사리합처럼 조성됐음을 확인했으며, 금동 사리함 측판의 원래 위치와 초창기 구조를 새롭게 밝혀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皇龍奉佛)'를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제법인연생(諸法因緣生)'이라는 연기법송 문구가 새겨진 은제판과 금동 팔각당형 사리기.

또한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금은고좌'가 금·은제 연꽃 모양 받침이라는 사실을 규명했으며, 금동 팔각당형 사리기에 법사리가 봉안된 방식도 새롭게 밝혀냈다. 정밀 조사 과정에서는 사리기 내부에 '제법인연생(諸法因緣生)'이라는 연기법송 문구가 새겨진 은제판이 설치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성과는 보물 '황룡사 찰주본기' 명문 금동 사리함에서 제작 장인들의 이름이 새롭게 확인된 점이다.

특히 학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보물 '황룡사 찰주본기' 금동 사리함의 뚜껑과 바닥 편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름들이다. 금동 사리함에 대한 정밀 보존처리 과정에서 판독된 김충(金忠), 연장(連長), 청선(淸宣), 연창(連昌) 등 4명의 이름은 당대 사리함 제작에 직접 참여했던 장인 또는 작업자들의 실명으로 추정돼, 1300년 전 통일신라 금속공예 제작체계와 불사 참여 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황룡사 찰주본기'는 경문왕 12년(872) 목탑 중수 당시 제작된 금동 사리함에 새겨진 기록으로, 목탑 창건 배경과 중수 과정, 불사 참여 인물, 새롭게 봉안된 사리와 공양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덕 국립경주박물관장은 "황룡사 9층 목탑은 역사적으로 다섯 차례 벼락을 맞아 중수가 이뤄졌다"며 "경문왕이 목탑을 중수하면서 기존 사리장엄을 확인하고 새로운 금동 사리함에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찰주본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찰주본기는 단순한 중수 기록을 넘어 황룡사 목탑의 역사와 신앙적 의미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불교 문화유산 기록물"이라며 "사리 봉안을 통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하려 했던 신라 왕실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관장은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맞아 축적된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황룡사 목탑 가장 깊은 곳에 담겼던 신라인들의 염원과 불교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부산 중앙성당 자리가 원래 사찰이었다고?"

6월 13일, 통도사 감로당서
적산사찰 실태 첫 학술대회
부산 73곳 중 불교 환수 2곳
통영 · 진해 사찰은 성당으로
마산 사찰은 방송국 · 고아원
성파 대종사 "관련 연구 시급"

부산 주교좌 중앙성당과 수정성당, 아동복지시설 새들원 자리가 본래 사찰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일제강점기 부산 곳곳에 세워졌던 일본 사찰, 이른바 '적산사찰(敵産寺刹)'이야기다. 해방 직후 이 사찰들의 대다수가 미 군사정부의 편향적인 정책에 의해 타 종교 시설이나 개인 소유로 탈바꿈한 뼈아픈 역사가 통도사가 개최한 학술대회를 통해 상세히 밝혀졌다.

재단법인 성파선예연구원과 한국근대불교연구회는 6월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감로당에서 '해방 이후 부산·울산·경남 적산사찰의 변천과 현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단과 지역을 넘어 적산사찰의 귀속 과정을 관보와 토지대장 등 1차 사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추적한 학술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부산 지역의 구체적인 적산사찰 유실 실태가 낱낱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문혜진 부산대 연구교수는 '부산시 일본불교 적산 연구' 발제에서 해방 후 부산에 남겨진 일본 사찰 73개소 중 추적이 가능한 40개소의 귀속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유화 및 민간화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와 개신교 등 기독교계 시설이 12%를 차지했다.


재단법인 성파선예연구원과 한국근대불교연구회는 6월 13일 통도사에서 '해방 이후 부산 · 울산 · 경남 적산사찰의 변천과 현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광식 전 특임교수, 영일 스님, 인산 지준 대종사, 주지 현덕 스님, 수좌 명신 스님, 종정 성파 대종사, 연산 스님, 한동민 관장, 문혜진 교수, 제점숙 교수, 이성수 동국대 강사.

구체적으로 정토종 지은사 터에는 천주교부산교구 주교좌 중앙성당이 들어섰고, 진종본원사파 고관포교소 자리는 수정성당으로 바뀌었다. 진언종지산파 금강사는 기독교 아동복지재단인 새들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반면 한국 불교계가 정식으로 불하받은 사례는 동본원사 부산별원이었던 대각사와 조동종 부산총천사분교소였던 반야사 단 2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성수 동국대 강사(불교신문 기자)는 '경남 남동부 적산사찰 연구'를 통해 통영과 진해를 비롯해 사천, 삼천포, 밀양, 삼랑진 지역 곳곳의 적산사찰 귀속 과정을 추적했다.

이 강사는 미군 군종 신부인 '드레크'가 통영 명증사와 진해 안국사를 가톨릭 성당으로 전환하는 데 직접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학술대회에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학자들의 뼈아픈 자성과 심층 연구를 촉구했다.

성파 스님은 "해방 이후 4년에 걸친 미군정 시기, 불교계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사찰관리법' 등으로 큰 억압을 받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막대한 사찰과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수난을 겪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불교계가 겪은 굴곡진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알리고 근현대 불교사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임강사 금비라합창단 제1회 창단 기념연주회

6월 26일 영주시민회관서

안동 임강사(주지 지현 스님)의 '금비라합창단'이 창단 기념 공연을 연다.

임강사 금비라합창단은 "오는 6월 26일 오후 7시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창단 기념연주회 연다"고 6월 15일 밝혔다.

'금비라'는 불법을 수호하는 야차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음악을 통해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의 마음을 위로하겠다"는 단원들의 서원이 담겼다. 단원들은 이번 첫 무대를 위해 지난 1년간 정기 연습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왔다.

공연은 총 3부에 걸쳐 진행되며 금비라합창단은 찬불가 '꽃 피울 때까지', '나는 한송이 꽃이 되어' 등을 비롯해 '서울탱고' '해뜰날' 등 가요를 선보인다. 또 성악가 황상미와 임강사 어린이법회 부모로 구성된 임강사랑밴드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반가사유상' 강좌

7월 1~15일 매주 수요일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주형)에서는 "7월 1~15일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026년 원효학당 두 번째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좌 주제는 '불교에서의 사유와 이미지: 반가사유상의 상징과 의미'이며 강사는 한국불교연구원장인 이주형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제1강은 '고뇌와 사유'를 주제로 우리는 왜 반가사유상에 매료되고 인도에서 사유상은 어떤 의미로 창안됐는지를 살피며, 제2강은 '수행의 계위'를 통해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이르기까지 불교도들은 사유상을 어떤 의미를 지닌 상징으로 활용했는지를 조명한다. '사유와 공감'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3강에서는 삼국시대 말부터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유행한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다룬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구도회원은 5만원이다.

신중일 기자

인왕 대종사 10주기 다례재 및 사리보탑 제막식 원만 회향

감사드립니다.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으로 6월 7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봉행된 〈연화경 인왕 대승정 연화 사리보탑 제막식 및 여래종 60년 중흥 종사 다례법회〉를 여법하게 마쳤습니다.

인왕 대종사님의 탄생 100주년과 원적 10주기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 종단의 대덕 큰스님들과 내외 귀빈, 그리고 온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내주신 정성을 받들어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570(2026)년 6월 7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전종도일동 합장

